『人文科學』 제123집 2021년 12월
DOI http://doi.org/10.23017/inmun.2021.123..297

女工 · 婦德 · 梱政과 '영혼 노동':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결혼생활과 노동/장 재성찰*

최기숙**

Ⅰ. 노동하는 삶: 조선시대 사대부가 여성의 결혼생활

조선시대에 혼인한 양반 여성에 대한 담론은 현모양처/모성 담론,[1] 또는 내훈과 곤범 등 규훈서라는 당대 여성의 성리학적 규범과의 연관성 속에서 논의되거나,[2] 여성 지성, 글쓰기 차원[3]에서 한정적으로 논의되어온 경향이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교수

1) 조혜란 (2017). 행장(行狀)에 재현된 조선시대 어머니상. 한국고전연구, 38; 오보라 (2019). 조선 후기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 『胎敎新記章句大全』의 의미. 고전과해석, 27 등.

2) 허원기 (2003). 『壺範』에 나타난 여성 독서의 양상과 의미(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에서 곤범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된 이래, 최근의 김서세리아 (2021). 『내훈』과 『열녀전』 인물 인용을 통해 본 소혜왕후의 젠더정치성(시대와 철학, 32(1))까지 문학, 역사, 철학 분야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연구 사례가 많아 일일이 적지 않는다.

3) 이에 관한 선행 연구 정리는 최기숙 (2016).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書·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176, 127쪽의 각주 22)번을 참조. 여성지성

있다.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담론화가 '내조'나 '현모양처' 담론으로 수렴되는 것이 당대 여성이 실제로 발휘한 수행성이나 역량에 대한 이해의 실상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재성찰하는 관점의 연구가 수행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4]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 여성의 법적/경제적 지위에 대한 논의,[5] 사대부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은 비평적 관점에서 조선시대 여성의 일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의 지평을 확대하려는 모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구 수행의 사례가 많지 않고 대상 자료나 논의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확대, 심화된 연구 시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노동으로 점철되었고, 결혼을 통해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소속 변경을 수행한 직장생활에 가까웠다는 것을 조선후기 문집에 수록된 여성의 생애사 기록물 총 1,070편[6]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증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이나 결혼생활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은 역사 연구로서의 여성 노동과 경제에 대한 연구,[7] 문학/예술 텍스트를 바탕으로 한 문화사적[8]/사상사적[9] 연구, 일상 연구,[10]문학 텍스트에 재현된 부부관계와 결혼

의 정의에 대한 재성찰과 확장성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3장(127~132)을 참조.

4) 최기숙 (2017a). 숨기는 힘, 숨은 역량: '내조'의 경계 해체와 여성 존경 언어의 회복을 위하여: 18세기 조선의 '문(文)' 양식에 나타난 여성의 자품(資稟) 수사 재성찰. 민족문화연구, 75.

5) 강명관 (2018). 조선 초기 자녀안(恣女案)의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김정경(金定卿)의 처 왕씨(王氏)의 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최증조, 한복룡 (2018).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妻의 財産상 지위. 法學硏究, 29(3) 등.

6) 구체적인 자료는 황수연 외 옮김(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서울: 보고사)을 대상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필자가 번역을 새로 하거나 윤문했음을 밝힌다. 인용한 번역본의 권수는 서지사항 옆에 적은 ':'의 왼쪽에, 인용문의 쪽수는 오른쪽에 인용문이 처음 등장하는 숫자를 적는다. 예컨대, 3:20은 번역본 3권의 20쪽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7) 이효재 (1985).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 여성학논집, 2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되어, 최근의 전지원 (2019). 조선후기 사족 여성과 노동담론 형성 과정: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에 이르기까지 활발하다.

8) 김성희, 이기영 (2007).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풍속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강성숙 (2013).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최기숙 (2014).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생활,[11] 여성 노동의 양상 분석에 집중되었으며,[12] 여성의 결혼생활 자체를 노동의 관점에서 분석하거나, 노동에 대한 인정구조의 해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수행한 노동의 특징은 해당 행위가 노동으로 명시되거나 간주되지 않았을뿐더러, 실제로 수행된 업무에 대해 논할 때 노동의 질과 함께 '태도'가 중시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는 근대적 의미에서 일종의 기계화된 업무 수행이나 노동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에 양반 여성이 가내에서 수행한 일종의 기술이나 능력은 '여공(女工/女功/女紅)'[13]으로 간주되었는데, 여기에는 길쌈, 바느질, 수예 등 손으로 하는 각종 노동이 포함되지만, 이를 '일' 또는 '노동'의 차원에서 담론화되지는 않았다.[14] 엄밀히 말해서,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의 '노동'은 사실상의 '그림자 노동'[15]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양상의 실제와

32.; 최기숙 (2017b), 여종과 유모: 17~19세기 사대부의 기록으로부터 - '일상·노동·관계'와 윤리 재성찰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1 등.

9) 김경미 (2016). 여성 노동에 대한 유가담론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38, 등.

10) 김엘리 (2017). 한산이씨의 『고행록』으로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여성과 역사, 26, .; 이순구 (2017). 딸에서 며느리로: 조선 여성의 삶과 결혼, 내일을 여는 역사. 69.; 장정수 (2017).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80 등.

11) 최기숙 (2010).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관련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등

12) 강혜선 (2012).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박경주 (2012).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등.

13) 조선시대에 사용된 '여공'의 의미에 대해 그간 사전적 정의에 의존해 왔으나, 당대적 맥락에서 정확한 의미 범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문 문장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말뭉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14) 선행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여공으로 간주되었던 것을 예술적 차원에서 미학적으로 논의하기도 했고(예컨대, 양수정 (2020). 조선 17세기 수첩(繡帖)의 문예사적 가치. 한국민화, 13 등), 경제적 차원에 주목한 바도 있지만, '노동'의 차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김경미 (2012).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생활. 한국여성학, 28-4는 조선시대에 여성이 가정에서 행한 노동에 주목해, 당시에 이들이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면이 있고 남성의 기록 속에서 은폐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단, 논자는 당시에 '여공'이 여성 노동으로 간주되었다고 보았는데, 문헌기록의 문맥상에 '여공'은 '노동'과는 다른 '자질' 또는 '습득된 기술의 발휘' 차원으로 간주된 경우가 많아 노동으로 인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기에, 이 점에 주목한다.

15) '그림자 노동'이라는 표현은 Iva Illich의 개념을 차용함(그림자 노동 (1982; 2015), 노승영 옮

범주, 내역, 목록이나 이와 관련된 수사학에 대한 엄밀한 탐색이 수행되지 않았다.[16] 양반 여성이 행한 '여공'에 대해 이를 가정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duty)'으로 여겨 '노동(labor; work)'[17]으로 담론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해당 행위에 대해 가내 노동의 담당자인 '(여)종'과 중첩되고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 사실상의 노동에 해당하며, 당대에도 이에 대한 (무)의식적 인지가 존재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이 실제로 감당한 노동의 종류와 내역을 살피고 이들이 대체로 '노동'으로 명명, 인식, 간주되지 않았음을 규명한다.

김, 서울: 사월의 책). 조선시대 여성의 경제활동 일반 및 생계 노동, 여종 관리 등에 대해서는 최기숙(2014)의 선행 연구를 참조. 초점화를 위해, 이 글에서는 이른바 진정, 공경, 존경, 진심 등 영혼의 요소를 요청하거나 기대된 노동에 대해 '영혼 노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진정성을 담보하는 '영혼'의 문제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친절'이라는 형식으로 규격화되고 자본화된 현대적 의미의 '감정 노동'과는 구분된다. 예컨대, 양반 여성이 봉양, 간병, 상장례, 제사 등을 바치는 상대나 타자(이웃과 친척)를 감동(또는 감격)시키거나, '망자의 혼'을 감동시키고 '하늘'의 감화를 받았다는 서술은 형식적 의미의 친절이나 자본화된 미소 등의 감정 노동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해당 표현을 단순한 수사로 볼 수 없음은 III장에서 논한다. 봉양이나 간병은 '효'의 차원에서 논의되지만, 실질적인 내용이나 과정은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양반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비평의 관점에서 당대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기에, 문자로 재현된 당대의 인식을 설명하거나 재현하는 관점을 지양하고, 당대의 담론구조에 가려져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던 여성 노동의 실상을 해명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예컨대, 간병을 영혼 노동으로 개념화하는 작업은 '효'에 대한 부정으로 환치될 수 없으며, 여기에 매개된 노동의 속성을 해석함으로써, 양반 여성이 실제로 일상에서 수행한 역할과 몫을 확장적으로 해석해 내는 데 의의가 있다.

16) 이효재(1985, 150~151)는 조선사회에서 신분제도를 재생산하는 가부장제도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여성을 남성과 가족에 예속시켰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역사문화적 조건이 여성이 실제로 수행한 노동을 '그림자'처럼 표백시켰다고도 볼 수 있다.

17) 이 글에서 사용한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노동'은 한나 아렌트가 개념화한 '일(work)'과 '노동(labor)'의 성격을 일정 부분 포함한다. 의식주 등 소모적 생필품을 조달하는 '노동' 이외에, 봉양, 간병, 상장례 등은 효라는 윤리 및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의무와 결부되는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성의 신체 노동을 매개로 수행되기에, 노동을 매개로 한 일, 또는 노동 과정을 거친 직분의 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이 연구는 한나 아렌트의 개념 적합성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노동과 일, 직분의 중첩성과 구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개념을 활용했음을 밝힌다. 한나 아렌트의 일과 노동의 개념은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옮김 (2019).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서원주 (2020). 노동 개념의 무세계성에 대하여: 아렌트의 맑스 비판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31(2)를 참조.

이때 여성 '노동'을 대체한 언어를 살펴, 이를 여성의 노동 수행에 대한 정당한 가치 평가가 배제되었던 문화적 맥락성이라는 차원에서 해명한다. 당시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노동의 질로서 태도이자 진정성과 공경, 정성이 담긴 결과였고, 이에 따라 노동의 숙련 과정에 대한 이해나 수행상의 피로도와 고충에 대한 인정구조가 현저히 부족했다. 이는 여성의 생애사 글쓰기의 주체가 양반 남성이어서, 여성의 일상이나 생애에 대해 '매개된 존재'로서 갖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쓰기가 역으로 여성의 직분과 윤리를 재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그것이 발휘하는 역사·사회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 글에서는 여성 노동을 둘러싼 담론화 양상과 수사 분석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를 통해 양반 여성에 대한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의 생애사적 글쓰기에서 수행된 찬사와 인정이 사실상 여성의 노동을 인격성(부덕, 품성)으로 수렴함으로써, 노동의 습득-숙련-수행-결과에 수반되는 노고와 어려움을 무/의식적, 비/의도적으로 은폐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파생시켰음을 밝힌다.

Ⅱ. 양반 여성의 노동 수행과 담론적 딜레마

이장에서는 조선시대 여성이 결혼생활이 다양한 노동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사실상의 무임금 직장생활에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동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살필 수 없었던 이유를 조선시대 문화, 생활규범의 실제 및 이념, 사회적 상상력의 조건과 특성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노동을 둘러싼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딜레마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질문 없는 수행: 여성 규범의 지침과 감정 노동

조선시대 내훈, 곤범, 여훈서 등 여성 관련 교육서에는 여성의 부덕, 또는

부도(婦道)라는 개념으로 여성의 노동을 포섭하고 정당화하는 현상이 발견된다.[18]

> ① 아아! 부녀자에게는 네 가지 덕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순종함으로 모아진다. 그 순종함은 어떠한 것인가? 부드럽고 유순한 것이다. 입으로 시끄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얼굴은 거만한 빛을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규방의 일의 이치는 이러한 상황을 기다려 돌고 돈다.[19] (金昌翕, 「祭仲婦朴氏文」, 『三淵集』 1:116)

부녀자의 덕으로 '순종'이 강조되었으며, 여성의 '아름다운 법도(懿則)'로 어릴 때의 행동(幼儀), 부인으로서의 도리(婦道), 어머니로서의 교육(母教) 등을 중시하는 등,[20] 부덕/부도에 대한 규범적 인식이 존재했다. 부덕/부도의 실천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여성 규범으로 전제되었으며, 이를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행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했다.[21] '내색하지 않음'은 규범에 대한 묵수를 의미하며, 이 자체가 찬탄의 클리셰가 되었다는 것은 부덕이라는 규범을 수행하는데 따른 '노동을 포함한' 각종 수행적 노력에 대한 인정이 간과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도'를 설명하는 부분에 서술된 남편에 대한 예의, 법도, 정성, 공경이 시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에 앞서[22], '당연히' 수행해야 할

---

18) 논의 집중성을 위해 이에 대한 연구사는 별도로 정리하지 않는다. 아울러 논증을 위한 각각의 사례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씩 수집되었으나, 논의 집중성을 위해 선별해 제시했음을 밝힌다.

19) '婦有四德, 統于一順. 其順如何, 柔嘉婉娩, 口絕諠言, 色不示慢, 閫事之理, 奚待轉運.' (金昌翕, 「祭仲婦朴氏文」, 『三淵集』 1:597)

20) 李宜顯, 「季妹貞夫人墓誌」, 『陶谷集』 7:303; 5:525

21) '세속의 부녀자들은 전전하니 대개는 이를 따르기만 하는 것인데, 부인만은 홀로 능히 마음 넓게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하였으니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俗婦剪剪, 大抵逡巡乎此, 而夫人獨能恢然, 若無事, 豈不難哉)' (李宜顯, 「季妹貞夫人墓誌」, 『陶谷集』 7:304; 7:525)

22) '며느리로서의 도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부인은 17세에 김씨에게 시집가서 그의 정성과 공경을 다하고, 예에 따름에 부족함이 없었으며 앞뒤의 사이에서 처신함에 각각 그 도리를 다하였다. 시아버지 충헌공은 엄격한 분으로 사람을 인정함이 적었는데, 매번 '어진 며느리, 어진 며느리'라 하며 남다르게 대우하셨다(請言婦道. 夫人十七, 歸于金, 殫厥誠敬, 率禮弗愆, 處先後間, 各盡其道. 舅忠憲公方嚴少許可, 而每稱"賢婦賢婦").' (李宜顯, 「季妹貞夫人墓誌」,

의무나 규율로 작용했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유순한 태도와 표정, 의사표현의 자제 등은 오늘날 명백히 '감정 노동'으로 일컬어지는 것들로, 이것이 순종이라는 규범으로 수렴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삶이 일종의 '감정 노동'으로 정향되었음을 시사한다.[23] 특히 빈곤한 가정에서 여성이 노동으로 경제력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여성의 피로와 고통은 내색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어, 여성의 노동에는 감정 요소가 필수적으로 부과되었음이 확인된다.[24]

사실상 조선시대 여성의 '노동'에 대한 서술에는 근면(勤), 삼감(謹), 정성(至/誠), 피곤을 내색하지 않음(無倦色) 등 태도와 관련된 서술이 수반되었다.[25] 이를 '숨은 덕(潛德)'으로 명명함으로써, 노고를 드러내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치하했는데, 이는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정을 품성으로 전유하는 문화와 담론구조를 형성했다. 여성 스스로 이러한 태도를 '자연화'함으로써, 사실상 노동에 해당하는 규범은 윤리로 전치되어 사회적 인정구조는 개인의 인격성과 내면의 수양 문제로 수렴되었다.

『陶谷集』 7:304; 7:525)

23) 순종이 암묵적으로 강요된 노동인지, 예의 바른 덕목으로서의 태도인지의 문제는 미묘하다. 그러나 가족 내의 위치성 속에서 강요된 순종은 자발성을 띠더라도 권력 관계 속에서 위계화된 속성을 지니기에, 강요된 윤리 또는 영혼 노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 글은 후자 쪽의 시각에서 해당 사항을 성찰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24) 물론 조선시대 모든 양반 남성이 경제에 전혀 무관심하거나 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양반 최흥원은 벼슬하지 않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했으며, 제사 주관, 손님 접대, 혼인 주선, 교육 담당, 생필품 마련, 장보기, 건강 챙김 등 실질적인 가사활동을 했다(김명자 (2020). 『曆中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양반가 남성의 가사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율곡 이이가 『격몽요결』(8장 거가[居家])에서 가난에 대해 곤궁함을 구제할 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양반 남성에게는 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가난을 몰랐다'는 남성의 기록을 통해 실제로 여성이 가계를 전담한 경우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 표현은 가계를 맡은 여성의 고통과 노력을 치하하기 위해 과장한 것일 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 및 사례는 선행연구(최기숙, 2016)를 참조.

25) 여성의 결혼생활은 사실상의 태도 노동이자, 진정성을 검증받는 영혼 노동이었다는 것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III장에서 논한다.

2. 대체-노동, 대리-수행: 노동을 통한 여주/여종의 역할 교차

조선시대 양반 여성은 결혼생활을 통해 다양한 노동을 감당했다. 이를 노동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나 일을 여종이나 종이 감당한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이 대체 가능한 것이고, 종을 통해 대리-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이다.[26] 문헌 기록에는 시댁이 가난해 부인이 손수 여공을 했다는 표현이 있는데,[27] 이는 여공이 명백히 경제 창출과 관련된 노동임을 시사한다. 다만 여공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이를 직분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여성 노동의 고통을 상쇄시키거나 협력을 구하려는 모색이 형성되기 어려웠다.[28]

조선시대의 혼인한 양반 여성이 결혼생활을 통해 노동을 수행한 내역은 여종과 역할 교차를 보이는 다음의 영역을 통해 그 실상을 논증할 수 있다.

첫째, 수유를 비롯한 육아 노동이다. 이는 자녀를 둔 양반 여성의 주요 역

---

26) 다음 기록에는 양반가 여성이 여종과 짝을 이루어 남편의 옷을 짓기 위해 밤샘하는 내용이 서술되었다. 명백한 노동에 해당한다.: '우리 할머니를 옆에서 도우며 시어머니 일을 이어받아 대신하여 칼과 자를 손에 쥐고 바느질을 했고 씻고 닦는 것도 다 하였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일을 주선하니 쓸고 닦는 것까지 했었소, 그리고 물러나 당신의 집안을 살피면서 내 옷과 두건 등을 마름질하는데 그때 여종 하나를 짝으로 삼아 등불을 마주하고 날이 샐 때까지 하였지요(佐我王母, 以承皇考, 代幹刀尺, 替執隨澡. 昕夕周旋, 以及灑掃. 退而省私, 理我衣帨, 一婢爲伴, 對燈達曙.).' (金載瓚, 「祭亡室遷葬文」, 『海石遺稿』, 3:574; 3:810)

27) '참판공의 집안 살림이 청렴하고 가난하여 부인이 손수 여공을 행했는데 부지런히 하며 그만두지 않았고, 옷과 먹을 것을 공급할 때는 지나치게 사치하거나 지나치게 검소하게 하지 않았다. (중략) 돌아와 서호에 거하게 되자 부인은 비녀와 귀걸이를 팔아 밭을 일구고 농사일을 하며 종신토록 살려고 하였다(參判公家業淸貧, 夫人手執女功, 孳孳不輟, 供給衣食, 不侈不儉. (중략) 洎歸息處西湖, 夫人鬻簪珥, 經紀田廬, 以爲終身偃息之所). (李頤命, 「外王母貞敬夫人李氏墓誌」, 『疎齋集』 1:30; 1:571); '큰 재앙을 당한 이후로 궁벽한 시골에 살았는데 집안이 더욱 낙후해져 부인이 손수 마를 집고 친히 힘들개 일했다(大禍之後, 寄寓窮鄕, 家業益旁落. 夫人手執麻枲, 身服勤勞). (李頤命, 「外王母貞敬夫人李氏墓誌」, 『疎齋集』 1:291; 1:648)

28) '아, 부인네들의 일이란 술과 장을 잘 담그고 옷감 짜고 바느질하여 그 부모와 시부모를 봉양하는 데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부인으로서 이런 일을 잘 해낸다면 또한 어질다 하기에 충분하다(嗚呼, 婦人之職, 莫過於善酒漿織, 以養其父母舅姑而已. 婦人而能此, 亦足爲賢矣. 顧孺人不以是自足).' (李縡, 「孺人驪興閔氏墓誌」, 『陶菴集』 4:478; 4:620)'라는 표현에는 여성의 삶을 여공과 등치시키는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할인데, 이를 대리-수행하는 '여종-유모'의 존재는 이것이 대체 가능한 노동임을 시사한다.[29] 양반 남성이 남긴 유모에 대한 제문이나 광기(壙記)는 이들이 유모와 수유라는 대체 가능한 도구적 관계를 넘어서 정서적 친밀성을 나누고 인간적 교류를 나눈 인격적 관계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수유 및 신체적 양육은 여종/유모를 통해 대체 가능한 노동이었다. 유모-종에게 양육된 양반 남성은 성장한 후에 이들에 대한 글을 남겨 그리움과 감사를 표했지만, '주인을 섬기는' 유모의 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30] 이는 유모를 인격적 주체로 상정하는 사회적/역사적 상상력의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유모의 수유/양육을 '노동'으로 간주했음을 뜻한다. 유사 의미가 양반 여성에게도 해당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청소, 빨래, 의복 만들기, 음식 등 '집안일', 길쌈 등 '여공'으로 명명되는 '가사노동'이다.

> ② 부인은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여종들에게 각각의 할 일을 주었다. 먹을 것을 때에 맞게 하고 휴식과 일을 절도 있게 하며 자신이 솔선하니 사람들도 기꺼이 힘써 일하여 부족한 일이 없었고, 재물의 유무로 남편을 상관하게 하지 않았다.[31] (崔昌大, 「貞敬夫人尙州黃氏墓碣銘 甲申」, 『昆崙集』 7:400)
>
> ③ 이미 곤궁함이 심하였고 또 부릴 여종도 없으니 물 긷는 일을 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도 힘든 줄 모르셨다.[32] (尹光紹,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遺稿』, 8:57)

---

29) 여종과 유모에 대한 조선시대 문헌 사례와 분석은 최기숙의 논문(2017b)을 참조.

30) 예컨대, 김주신이 선친과 백부의 유모였던 강소사에 대해 쓴 「姜召史壙記」(『壽谷集』)에는 유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사람됨이 공손하고 신중하며 주인의 집안을 정성으로 섬겼다(而爲人愿謹, 事主家以誠).'고 기록했다. 유모의 돌봄을 노주에 대한 섬김으로 간주한 것은 신분제라는 장치가 인간을 보는 해석적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 사례다. 노-주 관계의 경우, 연령 차이보다 신분적 위계가 우선했다.

31) '夫人日晨興掃除, 各授諸婢職事, 時飢飽節逸勤, 躬以先之, 人樂以勸, 擧無乏事, 不以有無關君子.' (崔昌大, 「貞敬夫人尙州黃氏墓碣銘 甲申」, 『昆崙集』 7:552)

32) '旣窮約甚, 亦鮮婢輩指, 乃操井臼躬烹飪, 不知勞也.' (尹光紹, 「生妣貞夫人李氏墓誌」, 『素谷遺稿』, 8:449)

④ 한가롭고 편안한 절기 때마다 서석 선생께서 찾아오셨는데 어머니가 정결하게 음식을 갖추어 받들었다. 선생은 돌아가서 부엌의 여종에게 "어찌 우리 며느리의 음식 솜씨만 못한 게냐!"라고 꾸짖곤 하셨다.[33] (金春澤, 「母夫人行錄」, 『北軒集』 7:426)

양반 여성은 새벽부터 일어나 청소했으며, 여종에게 업무를 분배하고 솔선수범하기 위해 직접 노동했다(②). 여종이 없으면 양반 여성이 직접 일했다(③). 시아버지가 여종의 음식 솜씨를 며느리와 비교하며 꾸짖은 사례(④)는 여종과 며느리의 역할을 등치적으로 이해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양반 여성의 가사일이 노비의 업무와 중복되었고 대체 가능한 노동임을 방증한다.

셋째, 상장례와 제사다.

⑤ 당시에 초상을 주관할 맏며느리가 없어 시신을 싸는 수의며 이불 등을 어머니께서 반드시 직접 스스로 마련하고 노비나 첩에게 맡기지 않으셨다.[34] (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7:95)

⑥ 3월 1일 새벽, 나와 홍중, 그리고 여종 두서넛이 둘러 앉아 속광(屬纊: 코에 솜을 대어 숨이 남아 있는지 확인함)을 하고, 해가 떠오른 뒤에 비로소 친척들에게 알렸다.[35] (金柱臣, 「亡妹墓誌」, 『壽谷集』 7:71)

⑦ 제사에 더욱 삼가서, 때를 따라 제물을 갖추고 그 깨끗하고 정갈함을 지극히 했으니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 비록 여종들이라도 다. 머리를 묶고 옷을 빨아 깨끗하게 했다. 제삿날 밤에 앉아서 일을 갖추시기를 늙을 때까지 한결같이 이 방법으로 게으르지 않았다.[36] (南有容, 「贈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 『雷淵集』, 3:276)

⑧ 이제 집에 너의 빈소를 차리니 오직 종들만이 지키고 있구나.[37] (李

33) '每時節間燕, 瑞石先生過焉, 夫人洗手具饌以奉之. 先生歸, 則輒讓婢曰: "何以不如吾婦之饌之佳也."'(金春澤, 「母夫人行錄」, 『北軒集』 7:558)

34) '時無長子婦治凶事者, 凡附於身衣衾以上, 先妣必躬自整理, 不委婢妾.' (金柱臣, 「先妣行狀」, 『壽谷集』 7:467)

35) '至三月一日曉, 余與弘仲及二三女奴, 環坐屬纊, 日出, 始告親戚.' (金柱臣, 「亡妹墓誌」, 『壽谷集』 7:461)

36) '尤謹於享祀, 比時具物, 致其蠲潔, 凡與祭者, 雖婢奚咸綰首濯衣, 嚌如也, 當祭之夜, 坐以待事, 至老一是道弗怠.' (南有容, 「贈貞夫人豐山洪氏墓誌銘」, 『雷淵集』, 3:724)

頤命,「祭第二女文」,『疎齋集』1:310)

양반가의 상장례와 제사는 양반 자녀가 수행하는 효와 예에 속한다. 그런데 위 기록은 양반의 수의(壽衣) 제작(⑤), 사망 확인(⑥), 제수 준비(⑦), 제사 수행과 묘 지키기(⑧) 등 상장례와 제사에 종이 관여했음을 보여준다. 상장례 또한 대체 가능한 노동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타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했다는 표현(⑤)은 상장례가 (부분적으로) 대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양반의 기록물에서 상례나 제사는 '효행' 담론으로 기술되었지만, 사실상 상장례의 수행에는 다양한 내역의 노동이 매개되었고, 여성의 역할이 컸다.[38] 위 사례는 상례, 장례, 제사와 와 같이 망자를 장례 치르고 조상을 모시는 일에 종이 참여했으며, 부분적이지만, 이들의 대리-수행을 통해 여성이 시가에서 상례와 장례를 수행하는 '노동'을 수행했음이 확인된다.

넷째, 시부모와 남편의 봉양과 간병이다.[39] 봉양은 남편과 시부모에게 일상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공'에 속하지만, 여기에는 수행자의 '정성'과 '공경'이라는 예의, 감정, 영혼의 헌신이 포함되며, 이는 '간병'에도 동일하게 요청되었다.

> ⑨ 아버지가 병이 나시자 죽 끓이고 약 달이는 일을 직접 하시고 자식이나 종들이 대신하게 하지 않으셨다.[40] (李宜顯,「先妣貞敬夫人迎日鄭氏行狀」,『陶谷集』7:323)

---

37) '今者僦屋而殯女, 惟婢僕是守' (李頤命,「祭第二女文」,『疎齋集』1:654)

38) 선행 연구에 따르면, 제사에 대해 남성은 사당 의례와 치제, 제수 마련, 제사 실행을 담당했고, 음식 장만은 여성의 몫이었다고 한다(김명자, 앞의 논문, 173.). 음식 조리 외에도 여성은 제수 마련, 제실 청소, 노복 관리, 제사에 참여한 친척 대접 등을 담당했다.

39) 남편의 간병에 대한 사례는 최기숙 (2017c). 조선후기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학적 연구: 17~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통해 본 현황과 추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를 참조.

40) '先君有疾, 則躬藥鐺, 躬親炊火. 不使子女婢僕替行. (李宜顯,「先妣貞敬夫人迎日鄭氏行狀」,『陶谷集』7:530)

시부모에 대한 며느리의 간병은 '효행'으로, 남편에 대한 간병은 '부덕'으로 간주되었는데, 여기에는 병자의 음식 조리와 약 다리기, 곁에서 돌보기 등의 노동이 포함되었다. 간병을 자녀나 노비에게 시키지 않고 몸소 한 것을 칭찬하는 문장은 간병이 대체-가능한 '돌봄 노동'에 속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가계 경영, 또는 빈곤한 가계를 위해 직접 노동해 돈을 번 경우다.

> ⑩ 몸소 여종들을 거느리고 한가하게 앉아서 손을 놀리는 때가 없었다. 자녀들의 혼례에 필요한 것이나 남편이 평생 쓸 물품들이 모두 집에서 방적하여 나온 것이다.[41] (尹鳳九, 「亡妹淑夫人尹氏墓誌」, 『屛溪集』 2:127)
>
> ⑪ 도리어 항상 베 짜는 것을 즐기며 매번 직접 베틀에 앉아 쉬지 않고 삐걱삐걱 북소리를 내면서 나와 아이들의 옷을 만들었다. 이런 일은 한양의 부녀자들은 본래 미천하다 여기고 하지 않는 것인데 부인은 태연하게 하며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42] (李宜顯, 「亡室贈貞敬夫人宋氏行狀」, 『陶谷集』 7:338)
>
> ⑫ 손수 여공을 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집안 식구들을 이끄니, 그러므로 위·아래, 어른·아이가 감히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였다. 또 가르침에 규모가 있었기에 비록 재주가 없는 종들이라도 모두 재주가 좋아졌다. 장례 때 쓸 수의를 미리 만들어 두셨는데, 모두 집에서 비단을 직접 짜서 만들며, "집이 가난하여 저자에서 사지 못한다. (생략)"[43] (金昌緝, 「淑人豊壤趙氏行狀 代作」, 『圃陰集』 7:153)

양반 여성이 직접 노동한 이유는 가난해서 살림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⑩), 부유하더라도 근면한 여성을 치하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⑪은 한양의 부유한 양반 여성들이 길쌈과 옷 만들기 등의 여공을 하찮

41) '躬率女僕, 無閒坐遊手時, 子女嫁娶之具, 夫子百歲之需, 皆自家績中出.' (尹鳳九, 「亡妹淑夫人尹氏墓誌」, 『屛溪集』 2:706)

42) '顧常喜織布, 每自上機, 杼聲軋軋不休, 以衣余與兒小. 此事京華婦女, 素所鄙夷而不爲者, 夫人安然不以爲恥'. (李宜顯, 「亡室贈貞敬夫人宋氏行狀」, 『陶谷集』 7:535)

43) '手執女功, 日夜矻矻, 以率家衆, 故上下大小, 莫敢惰焉. 又敎導有方, 故婢僕雖無才者, 皆精於藝. 預治送終衣服, 而皆自家中織帛爲之曰: "家貧無以市. (생략)"' (金昌緝, 「淑人豊壤趙氏行狀 代作」, 『圃陰集』 7:484)

게 여기던 풍조를 비판하면서, 검소하게 손수 노동한 망자의 생애를 칭찬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문화 비평은 여공이 분명한 노동임을 시사한다. 또한 여주가 종을 가르쳐 기술에 능했다거나(⑫) 함께 일했던 정황은 여주와 종이 같은 일에 종사했고, 빈곤을 극복하는데 공조했음을 의미한다. 양반 여성의 가내에서의 업무 수행은 사실상 여종과 중첩되거나 교차 가능한 성격을 지닌 노동이었다.

3. 학습 없는 숙련, 과정 없는 결과: 천부/재주가 아닌, 능력/노동으로서의 '여공'

조선시대 양반 여성은 결혼생활을 통해 다양한 노동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헌 기록에서 '노동(役/勤勞)'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는 드물다.[44] '여공(女功/女功/女紅/婦工)', 또는 '여직(女職)'[45]이라는 표현은 여종이 아니라 양반가 여성, 또는 궁녀에게 해당되며, 이들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 ⑬ '여자는 유순함(婉娩; 완만은 유순한 모양이다)과 순종과 여자가 하는 일(女工) 가운데 큰 것을 가르친다(여공[女工]은 누에치기·길쌈·바느질 및 음식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부인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로 하여금 옷과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어려움을 알게 하여 감히 제멋대로 사치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화려하고 교묘한 물건을 엮어 짜는 일 또한 반드시 익힐 필요는 없다).[46] (柳長源, 「居家雜禮」, 『常變通攷』)

---

44) '役'은 종의 직임을 가리키는 단어이므로, 양반에게 사용되지 않았다.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에 검색하면, 111건이 검색되는 '勤勞'는 양반과 왕실 인물의 남녀 모두에 사용되었으나, 여성의 술어로 사용된 사례는 단 2건으로, 남성의 사회 활동이나 독서에 대한 서술어로 사용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45) '유인은 친정에 있을 때부터 공경하게 여공을 익혔다(孺人自在其家, 恭爲女職). (金昌翕, 「姪婦高靈申氏墓誌銘」, 『三淵集』 1:46; 1:575)

46) '女子則敎以婉娩[柔順貌], 聽從及女工之大者[女工, 謂蠶桑織績裁縫及爲飮膳, 不惟正是婦人之職, 兼欲使之知衣食所來之艱難, 不敢恣爲奢麗. 至於纂組華巧之物, 亦不必習也].' (柳長源, 「居

> ⑭ 8, 9세에 부도를 이미 갖추었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민첩했다. 말은 얌전하고 진실되었으며 여공과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47] (李喜朝, 「孺人宋氏墓誌銘 并序」, 『芝村集』 1:235).

유장원(柳長源. 1724~1796)은 예서 『가례통변』에서 여공의 범주에 방적과 침선, 음식 조리를 포함시켰지만(⑬), 표현에 따라 '여공'과 '음식 조리'를 구분하기도 했다(⑭). 다소의 의미 차이는 있지만, 여공의 내역에는 길쌈, 수예, 자수, 바느질 등 일정한 수련과 학습이 필요한 일종의 숙련 노동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그림 그리기와 같은 예술은 포함되지 않았다.[48]

한편, 종의 업무에 대해 조호익(曺好益. 1545~1609)은 『가례고증』에서 '창름(곡식 저장), 구고(말과 창고), 포주(도축과 조리), 사업(집 관련), 전원(농사) 따위를 관장하게 함을 말한다(謂使之掌倉廩廄庫庖廚舍業田園之類)'고 서술했다. 각 문헌의 서술 문맥을 통해 '집안일(舍業)' 안에 여주(女主)의 일과 여종의 업무가 겹치는 것이 확인되지만, 종의 업무는 '여공'으로 명명하지 않았다.

여성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보면, 양반 여성이 '여공'을 익히는 나이는 6~10세 정도인데, 16세에 시집와서 처음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49] 혼인 전에 부도와 여공을 익히는 시기가 비슷해,[50] 여성으로 교육되는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家雜儀」, 『常變通攷』)

47) '八九歲, 婦道已成, 擧止端敏. 言語靜愼, 女紅中饋之事, 靡不精通.' (李喜朝, 「孺人宋氏墓誌銘 并序」, 『芝村集』 1:632)

48) '생각하니 내가 일찍이 고전에 여성들의 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옷감 짜고 방적하는데 그쳤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니 부인의 기술이 이와 같은 것이 어찌 보모의 가르침을 번거롭게 한 것이겠는가? 그 성품이 총명하고 재주가 민첩하여 미친 것일 뿐이다. 옛사람들이 그림과 시는 서로 상통한다고 하였다(抑余嘗觀古傳記所稱婦工, 止織紝組紃, 若乃繪事不與焉. 而夫人之技如此者, 豈煩於姆敎哉? 諒由其性悟才敏而旁及之耳. 古人謂畫與詩相通.' (金鎭圭, 「題思任堂草虫圖後」, 『竹泉集』 1:385; 1:678)

49) 6세(權萬, 「先令人豐壤趙氏行錄」, 『江左集』 2:200), 7세(宋徵殷, 「叔母貞夫人全州李氏行狀」, 『約軒集』 1:29), 7~8세(金柱臣, 「亡妹墓誌」, 『壽谷集』 7:72), 8세(趙觀彬, 「亡室貞夫人慶州李氏行狀」, 『悔軒集』2:304), 10세(金昌翕, 「先妣行狀」, 『三淵集』 1:92)) 등으로 8~10세가 가장 많고, 늦은 경우 16세로 기록된다(李德壽, 「先妣行錄」, 『西堂私載』 4:175 등).

그렇다면 여공은 누구에게 배웠을까?

⑮ 숙인은 단정하고 중후하며 총명하고 민첩하여, 부덕과 여공은 모교를 번거롭게 하지 않았다.[51] (宋煥箕, 「淑人李氏墓誌銘 并序」, 『性潭集』, 5:385)

⑯ 며느리를 얻고는 자질이 훌륭해 가르칠 만하다고 여겨, 시부모를 모시고 하인들을 다루는 법도에서부터 바느질하고 술 빚고 장 담그는 세세한 일까지 가르치지 않은 게 없었소.[52] (尹鳳九, 「祭亡室令人朴氏文」, 『屛溪集』 2:74)

여공은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의 노력을 통한 숙련화가 필요한 명백한 기술(skill)이다.[53] 양반 여성은 대개 혼인 전에 여공을 습득했지만, 혼인 후 시댁에서 여공을 익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하인 관리, 바느질, 술 빚기, 장 담그기 등을 가르친 사례도 있다(⑯). 『예기』에도 여성이 배워야 할 내용에 이른바 '여공'을 포함시켰는데,[54] 문헌 기록을 보면, 여성에게 여공을 가르친 '모교(姆敎)', 즉 스승이 잘 언급되지 않았고, 언급된 문장(⑮)에서조차 '모교'의 정체를 밝히거나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서술하지 않고, 다만 '보모에게 배우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이 대부분이다.[55] '배우지 않고 능숙히 해

50) '8 · 9세에 부도를 이미 갖추었고 행동거지가 단정하고 민첩했다. 말은 얌전하고 진실 되었으며 여공과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정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八九歲, 婦道已成, 擧止端敏, 言語諴愼, 女紅中饋之事, 靡不精通)' (李喜朝, 「孺人宋氏墓誌銘 并序」, 『芝村集』 1:235; 1:632)

51) '淑人端重聰敏, 婦德女紅, 不煩姆敎.' (宋煥箕, 「淑人李氏墓誌銘 并序」, 『性潭集』, 5:545)

52) '自得緯婦, 謂其質美可敎, 如事尊章御婢僕之道, 至針線酒醬之細, 敎之靡不有方.' (尹鳳九, 「祭亡室令人朴氏文」, 『屛溪集』 2:689)

53) 예컨대, 면업(綿業) 생산의 절차는 밭갈이(整地), 씨뿌리기(播種), 거름주기(施肥), 풀베기(除草), 솜따기(收獲) 등이고 천을 짜는 방적 과정은 씨앗기(繰綿), 솜타기(打綿), 고치말기(練絲), 실잣기(紡績) 등의 과정을 거치는데(이효재, 1985, 159~160), 남성 기록에서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서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54) '여자아이의 경우, 열 살이 되면 규문 밖으로 나가지 말고, 여선생이 유순한 말씨와 태도를 화순하게 갖는 것을 가르치고, 삼베 길쌈을 하며, 누에를 쳐서 실을 뽑으며, 비단, 명주를 직조하고 실을 땋아서 여자의 일을 배워 의복을 제공하며, 제사에 참관하여 술과 초와 대나무 제기와 나무 제기와 침채와 육장을 올려 제사 지내는 것을 돕게 한다.' (『예기』 中, 제 12 「내칙」, 이상옥 역, 명문당, 2003, 799~840쪽[김경미, 2012, 49에서 재인용]).

내는 것’을 여성의 탁월한 자질로 평가하는 담론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⑰ 무릇 바느질하고 술과 간장 담그는 여공 등을 모두 익히지 않고도 이롭게 했다.[56] (金昌翕, 「姪女李氏婦墓誌銘」, 『三淵集』 1:82)
>
> ⑱ 제기를 들이고 제물을 풍성하게 준비함에 정결하고 어그러짐이 없었으니, 친척들이 와서 보고는 다들 말마다 칭찬하기를, “열네 살밖에 안 된 여아가 어찌 그리 숙성할꼬?” 라고 하였다. 그 밖의 일과 침선 등 역시 민첩하면서도 꼼꼼하게 잘 하여 규합의 스승이 유인의 재주와 품격이 매우 높음을 칭찬하였고, 그 손에서 나온 것은 모두 마음에 깨우침이 있었는데,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럴 수 있었다.[57] (尹鳳九, 「從孫婦孺人吳氏墓誌」, 『屛溪集』 2:119)

대개 이들은 여성이 배우지 않고도 능했다고 기록해 ‘여공’이 ‘천부적 자질’인 것처럼 서술하거나, 여공에 능숙한 ‘결과’만을 서술했다. 반면, 양반 여성은 여종에게 사실상의 ‘여공’에 해당하는 노동을 전수하고 가르쳤다는 기록이 보인다(⑫). 가르침은 위에서 아래로 수행된다는 위계적 인식이 양반의 종에 대한 교육을 인정하게 했던 것이다. 여종에 대해서는 이를 ‘배움(學)’의 차원이 아니라 ‘재주/기예’에 정교해졌다는 ‘기술’ 습득의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習’이라는 학습의 언어, ‘無一不能’[58]이라는 능력의 어휘를 사용했다. 그러나 일상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감각 경험 또한 여성의 경험 자산이자 학습 대상이며, 그 결과다.[59]

---

55) 필자가 검토한 총 1,070편의 자료 중에 여공을 언급한 것은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를 ‘배움’의 대상으로 서술한 것은 10편 미만이다

56) ‘凡於女工治鏞婁納酒漿, 皆不習而利.’ (金昌翕, 「姪女李氏婦墓誌銘」, 『三淵集』 1:587)

57) ‘納籩豆備粢盛, 鐲絜無虧, 親黨來見, 皆嘖嘖曰: “十四歲女兒, 何其夙成也?” 餘事針刺, 亦敏妙精細, 閨閤傳稱其才品甚高, 出於手分者, 皆論於心, 不勞而自能也.’ (尹鳳九, 「從孫婦孺人吳氏墓誌」, 『屛溪集』 2:704)

58) ‘또 여공을 익혀 무릇 베 짜고 음식 하는 일들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시킨 적도 없었다(且習女工, 凡於紡紝饋飧, 無一不能, 而亦未嘗以此加於人).’ (李健命, 「亡室 贈貞夫人光州金氏墓誌銘 并序」, 『寒圃齋集』 7:200; 7:497)

59) 이에 대해서는 최기숙(2016)에서 상세히 논증했다.

이는 '學'이란 문자적 행위이며, 남성 전용의 단어라고 간주했던 의식과 상상력이 작동한 결과다.[60] 남성의 학문 능력이나 글쓰기 능력이 특정한 스승에게 사사받은 것임을 명시함으로써, 학문과 문학, 나아가 사상적 계보를 인정하던 관례에 비하면, 여공의 습득 경로는 모호하게 처리되거나 천부적인 자질로 서술되어, 여공의 특징이나 진행 방식, 과정, 노하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수사학, 계보화는 부재하다. 이는 여공이 호환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것이라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이에 대한 몰이해와 가치 폄하적 태도를 반영한다.

오늘날 방적 기술이나 복식 미학, 음식 조리는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으로 세분화되었고, 개성, 취향, 자본, 지식, 감각, 미학에 따라 다양하게 구현된다. 조선시대에도 노동의 맥락, 배경, 조건, 행위자의 능력과 취향, 개성이 매개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공'과 관련해 여성의 솜씨, 능력, 자질을 상세히 묘사하거나 평가하는 어휘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인정구조 자체가 부재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한편으로, 여공에 탁월한 여성을 칭찬하는 서술 관습 속에서, 해당 여성이 특정한 배움의 과정이 없이도 탁월하게 여공을 수행했다는 칭찬의 언어를 택함으로써, 일면 여성의 노력을 천부의 재능으로 신비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 과정을 은폐하고, 숙련의 과정을 투명하게 표백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이처럼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하는 인식은 업무 숙련에 따른 어려움과 노력에 대한 인정구조를 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그 역 또한 가능하다), 여성 노동에 대한 글쓰기 관습, 또는 담론 패턴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각과 상상력을 결정했다.[61] 이러한 서술 관습은 여성의 노력과 수행성에 대한 인정구조 형성을 불가능하게 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연마, 능력에

60) 여성의 교육과 재능, 교양, 역량에 대해 문자 중심으로 판단하는 시선은 양반 남성의 판단 기준이므로 경험, 구술, 행동을 중심으로 재성찰해야 한다는 관점은 최기숙(2016)을 참조.

61) 김춘택은 바느질과 요리를 '여사(餘事)'라고 표현해, 여성 노동과 연마, 능력에 대한 몰이해와 불인정의 태도를 보였다.: '침선과 주식에 능했던 것은 또한 여사일 뿐이다(7:429) (若夫針線酒食之能, 又其餘事耳!)' (金春澤, 「母夫人行錄」, 『北軒集』 7:560)

대한 어휘가 생성될 수 없었다.

4. 梱政/內政/家政 · 經紀: 가정 관리와 가계 경영

조선시대의 혼인한 양반 여성이 가정을 다스리는 총괄 업무를 지칭하는 개념은 '곤정'[62] 또는 '곤내지정(閫內之政)',[63] '내정(內政)', '가정(家政)'[64] 등이다. 양반 여성이 가정을 다스리는 '곤정'은 가문을 빛내는 주요한 가정 관리 능력으로 간주되었다. 곤정의 내용에는 음식 조리, 의복 마련(길쌈, 바느질),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과 경제적 자립과 치산 등 가계 경영을 뜻하는 '경기(經紀)'의 개념이 포함되었다.[65] 아울러 가족구성원과 이웃에 대한 광의적 의미의 돌봄과 자녀 교육, 남편에 대한 태도와 행위가 포함되는데, 이 중에서 남편이나 자녀와의 관계를 지칭하는 용어는 내조와 양육이라는 별도의 개념이 존재했다. 실질적인 가사노동을 지시하는 용어는 여공, 여직 등이다. '곤정'의 '정(政)'은 관리, 또는 다스림의 영역에 해당되는 규범적 용어이기에, 보상받아야 할 노동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수양과 의무, 규범의 차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곤정 또는 내정에는 노비 관리가 포함되었다. 이는 여성의 규범을 논한 한원진의 <한씨부훈> 7장(「御婢僕章第七」. 『南塘集』)을 형성할 정도로 중요성을 인정받았다.[66]

---

62) '여공은 민첩하면서도 교묘한 것이 보통 사람을 뛰어넘었고, 곤정은 치밀하게 했다(女紅敏妙絕人, 梱政緻密.)' (李宜顯, 「寧嬪安東金氏墓表」, 『陶谷集』 7:313; 7:527)

63) '여공에도 부지런하여 집안의 다스림이 정연하게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勤於女工, 閫內之政, 井然有序).' (李德壽, 「恭人韓氏墓誌銘」, 『西堂私載』 (4:162; 4:532)

64) '문호를 지키고 가정을 다스리는 일이 한결같이 오직 부인이 하시는 일에 달려있었습니다(持門戶莅家政, 一惟夫人之爲.).' (李栽, 「祭外姑咸陽朴氏文」, 『密菴集』 1:357; 1:670)

65) '재산관리'를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치산(治産)'이라는 단어는 조선후기 야담 등 문학에서는 자주 사용되었지만, 사대부의 글에서는 '치산을 일삼지 않았다(不事治産)'는 부정적 표현에 사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66) 「幹家務章第八」에 언급된 여성의 가내 업무 중에도 '노복 다스리기'가 한 항목으로 서술되었다.

⑲ 어머니가 바로 내정을 맡으셨는데 종들이 본래 드세어 통솔이 되지 않았는데 소리나 기색을 내지 않으면서 다스리고 어루만지기를 합당하게 하며, 엄중하게 대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니, 1년이 못 되어 집안의 종들이 믿고 복종하며 하나도 도망하거나 배반하는 자가 없었다.[67] (崔昌大, 「先妣貞敬夫人慶州李氏行狀 丙申」, 『昆崙集』 7:409)

'내정'의 주요 내용에 종을 통솔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며, 도망치는 일이 없게 하는 일이 포함되었다. 그 가운데 양반 여성이 비복을 가르쳐 마음으로부터 수긍하게 했던 일이 눈에 띈다. 내용상 가르침의 내용은 업무나 일이 아니라 윤리, 도덕, 예의에 속하는 행위/태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치산과 경제, 살림살이 등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경기(經紀)'의 내용이다.

⑳ 집안을 다스림에 민첩하면서 부지런하고 은혜로우면서도 위엄이 있고 일일이 살피지 않아도 훤히 알고 있었다. 집안은 마치 사람이 없는 듯 조용하고 아무 일이 없는 듯 고요하여 다만 탁탁 하는 칼질 소리, 찰찰 하는 베틀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친척들 가운데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다투어 찾아와서 그 법을 배우려 했는데, 이를 배운 사람들은 능히 자기 집안 살림을 일으켰다.[68] (吳光運, 「先妣淑夫人安氏墓誌」, 『藥山漫稿』 2:238)

양반 여성이 집안을 잘 다스려 경제력을 갖추고 살림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다. 가세가 기울었지만 종이나 밭을 팔지 않고 시누이를 혼인시킨 사례를 통해,[69] 양반 여성이 혼수 비용을 스스로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 경제력 창출의 방법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문 ⑳이다. 칼질 소리, 베틀 소리 외에

67) '先妣奄當內政. 婢僕素悍不率, 而不動聲氣, 鎭怗得宜, 莅之以嚴重, 行之以公正, 不期歲, 家衆信服, 無一逃畔者.' (崔昌大, 「先妣貞敬夫人慶州李氏行狀 丙申」, 『昆崙集』 7:554)

68) '其治家, 敏而勤惠而威, 明而不察, 庭閤靜若無人, 密若無事, 但聞刀尺鏘然, 機杼札札而已. 親黨慕用者, 爭來取法, 得其法者, 能立其家.' (吳光運, 「先妣淑夫人安氏墓誌」, 『藥山漫稿』 2:738)

69) 吳光運, 「先妣淑夫人安氏墓誌」, 『藥山漫稿』 2:238; 2:738 등.

들리지 않는 양반집의 풍경은 글쓰기의 수사적 차원을 고려한다고 해도, 노동 현장의 묘사에 다름 아니다. 친척들이 이를 배워 집안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보아, 경제력을 창출하는 가내 노동이 전수 가능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살림살이를 칭하는 '경기(經紀)'는 농사뿐 아니라, 재화 창출에 해당하는 여성의 광범위한 경제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양반 여성의 규범을 의미하는 '곤정'은 교양 있고 예절 바르며 품위 있는 행위와 태도를 지시하는 용어다. 그러나 실제로는 노복 관리, 경제력 창출 등 실무 경제 행위가 포함되었다. 단, 이를 지시하는 용어가 '곤정/가정/내정' 등의 추상적이고 미분화된 어휘로 포괄된 것이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치산 행위가 양반에게 부적절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양반 남성에게는 청렴과 청빈한 삶의 규범이 요청되었고, 가계경제에 대한 책임을 상당 부분 여성이 차지했지만,[70] 이에 대한 인정 구조가 불충분했다는 것은 해당 업무와 관련된 어휘/단어의 결핍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여성에 대한 인정구조가 현저히 취약했기에, 여성이 가내에서 행한 업무나 능력, 자질에 대한 어휘가 미분화되어 있었고, 품성 언어와 여성의 능력 언어가 혼융되어 사용되어, 여성의 역량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배제되는 순환 구조가 거듭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진정성-노동과 품성 노동: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영혼 노동' 재성찰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결혼을 통해 수행한 업무 중에서 시부모와 남편의 봉양, 간병, 상장례[71]와 제사 등은 노동이 아니라 '효' 또는 '내조'라는 '부덕'

70) 조선시대 양반에게는 '치산'보다 '治貧', '甘貧', '克貧'의 덕목이 강조되었다. 이에 대한 논증과 분석은 최기숙(2014)를 참조.

71)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각 항목은 전문 직업으로 분류되어 시행되거나 비용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분화, 또는 산업화/자본화되어 있다. 제사는 간소화되는 추세다.

과 '규범'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이와 관련된 행위 서술의 내역에는 반드시 품성과 태도의 언어가 기술되어, 해당 행위가 '일'이 아니라 윤리적 규범이나 직분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자연화'한다. 노동에 대해 치러야 하는 사회적 보상은 '어진 인격'에 대한 칭찬의 언설로 대체되거나 그조차 개인의 당연한 수양으로 수렴되어 정당한 인정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웠다. 물론 이 자체를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정구조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를 인격이나 윤리의 언어로 수렴하는 과정에는 노동하는 당사자의 반복되는 신체 노동의 고단함, 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이 간과될 수 있다. 관점을 달리해 사유해 보면, 이러한 언설 구조 자체가 양반 여성이 결혼생활을 통해 수행한 봉양, 간병, 상장례 수행을 의무와 윤리로 간주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진정성'의 요청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했다고도 볼 수 있다.

> ㉑ 시부모를 효와 공경함으로 받들었으며, 남편을 엄숙함으로 대하여 희롱하는 말이나 시시한 우스개를 한 적이 없었다. 제사를 받들고 술을 빚으며 소박한 제사를 부지런하고 공경하게 모셨다.[72] (趙德鄰, 「曾祖妣宜人崔氏墓表」, 『玉川集』 7:38)

위와 같이 사실상 결혼한 양반 여성은 봉양, 간병, 제사, 육아, 내조 등을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수행했다. 그중에서도 양반 여성의 대표적인 섬김 노동에는 시부모와 남편이 포함되었으며, 부차적으로 시댁 가족이 포함되었다. 봉양은 시부모의 일상생활을 뒷받침하거나 지탱하는 기본적인 생활 노동에 속한다. 이를 '봉양'으로 명명한 것은 노동의 혜택을 받는 대상이 남편의 부모이자 실질적으로 혼인 여성의 사회적 정체성을 담보하는 가장이기에, 생활 노동의 행위 과정과 표현에 '존경'과 '의무', '진정성' 등이 요청되는 일종의 윤리나 의무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봉양'이란 종이 주인댁 아기를 기를 때에도 사용된, 일종의 '위계

72) '奉舅姑孝敬, 待夫子齊莊, 未嘗戲言苟笑. 執豆籩, 冪酒醴, 薦蘋蘩, 克勤克敬.' (趙德鄰, 「曾祖妣宜人崔氏墓表」, 『玉川集』 7:452)

화'된 단어다.[73] 여기에는 시부모의 의식주와 관련된 일상생활의 편의성이 포함된다. '혼성신성'으로 대표되는 새벽과 저녁의 안부 인사, 잠자리 살피기는 『삼강행실도』에 삽입될 만큼 중요한 요목이다. 말하자면 새벽부터 잠들기 전까지 여성은 시부모 봉양에 대한 노동을 일종의 '예'로써 수행해야 했다.

결혼한 양반 여성이 시부모와 남편의 봉양이나 간병, 상장례와 제사 등을 수행했던 바에 대한 양반 남성의 기록에는 반드시 정성, 공경, 진정성 등의 태도 부사와 형용사가 결합된 쓰기의 문법이 발견된다.

> ㉒ **시부모 봉양:** 공인은 그 집안에 들어가 시부모님을 섬기는데 정성과 예를 다하였고, 그것을 시집의 친속들에게까지 미치게 하였는데, 또한 규범적인 행동 아닌 것이 없었다.[74] (宋相琦, 「恭人東萊鄭氏墓誌」, 『玉吾齋集』 1:267)
>
> ㉓ **남편 봉양:** 부인은 나를 대하기를 매우 공경하여 처음과 끝이 한결같았다. 내 몸에 관계된 일이면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면 두려워하고 조심하지 않음이 없었다.[75] (趙觀彬,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悔軒集』 2:300)

시부모 봉양을 서술할 때는 '혼정신성'을 비롯해 '정성(誠)', '지성(至誠)', '공경(敬)', '삼감(謹)', '충심(忠)', '게으르지 않음(不懈)', '한결같음(終身如是)', '예(禮)', '규범(儀)' 등, 진정성 있는 태도가 표현되었다. 남편 봉양에 대해서도 '극진한 공경'과 '진심 어린 정성'이 강조되었다(㉓). 시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것을 한으로 여기며, 목메어 울었다는 표현을 통해[76] 시부모 봉양에 '눈물'로 상징되는 진정성과 영혼이 관여/요청되었음을 시사한다.

---

73) 몇 년 지나 신군(종)의 처가 죽자 신군의 후처가 봉양하여 정성껏 하기를 전처와 마찬가지로 하였다(數歲而信君妻死, 其後妻奉養之誠又一如其前妻). (權斗經, 「先妣孺人金氏言行記」, 『蒼雪齋集』 1:202; 1:621)

74) '恭人入其門, 事舅姑, 克盡誠禮. 推以及於夫黨親屬, 亦無非儀焉.' (宋相琦, 「恭人東萊鄭氏墓誌」, 『玉吾齋集』 1:641-642)

75) 趙觀彬, 「亡室貞夫人昌原俞氏行狀」, 『悔軒集』 2:300; 2:755 등.

76) '常恨未逮事先姑, 語及嗚咽, 終身如是也.' (金昌翕, 「先妣行狀」, 『三淵集』 1:93; 1:590-593)

㉔ **간병**: 호군공의 병이 위독해졌을 당시는 추운 겨울이었는데, 숙인은 매번 목욕하고 집안 사당에 기도했고, 이른 새벽이나 저녁때면 해와 달에 절하며 자신이 대신하기를 바랐다. 그러하고서도 손가락을 찌르고 팔뚝을 베 피를 내어 드렸다. 점쟁이가 말을 잡아서 빌어야 한다고 하니, 숙인은 "나는 오직 내 힘닿는 데까지 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 하고 허둥지둥 일이 도리에 어긋나는지 물어보고는, 바로 호군공이 타고 다니던 말을 씻어서 마당에 두게 하고 직접 당에서 내려와서 하늘에 빌었는데, 눈물이 말할 때마다 흘러내렸다. 호군공의 병은 곧바로 나았고 말은 병들어 죽었다. 듣는 사람이 모두 기이하다고 하였다.[77] (李德壽, 「淑人林氏墓誌銘」, 『西堂私載』 4:158)

간병은 시부모/남편이 병이 들었을 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간호하고 봉양하는 행위에 속한다. 시부모/남편이 병들었을 때, 며느리/아내가 '정성껏 간호'한 내용은 여성 관련 생애사 글쓰기에 자주 서술된다. 말하자면 여성 일반에게 요구되고 기대되었던 보편적 사안이었다. 시부모/남편에 대한 간병은 며느리/아내의 효/부덕으로 찬탄되었지만, 실제를 들여다보면 이는 명백한 노동이다. 이는 간병을 담당하는 노비가 존재했던 정황을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

양반 여성은 시부모와 남편의 간병을 위해 건강을 돌보지 않고 헌신했다. 의약적 돌봄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단지(손가락을 베어 피를 드림)하며, 할고(넓적다리를 베어 드림), 또는 상분(변을 맛 보고 건강 상태를 확인함)하는 일종의 '영혼 노동'을 수행했다.[78] 기도를 해서 병이 나았다든가, 단지를 해서 효과가 있었다는 사례는 봉양 노동을 하는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영혼을 압박

77) '護軍公病沾殆, 時方隆冬, 淑人每澡浴, 禱于家廟, 晨夕拜日月, 願以身代. 旣又刺指刲臂, 出血以進. 筮者言當以馬禳, 淑人曰: "吾唯靡不用吾極" 遑問事之不經, 乃命洗護軍公所乘馬, 置庭中, 親下堂祝天, 涙遶言下. 護軍公疾旋已, 馬則病死. 聞者異之.' (李德壽, 「淑人林氏墓誌銘」, 『西堂私載』 4:531)

78) 병든 남편을 위한 단지와 할고의 사례 및 효과에 대해서는 최기숙(2017c, 287~288), 각주 42)의 사례를 참조. 남편에 대한 간병 사례는 이 논문(2017c)에서 상세히 다루었으므로, 재론하지 않는다.

하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아픈 아내/며느리를 위해 남편과 시부모가 단지, 할고, 상분을 했다거나, 자신이 병을 대신하도록 기도했다는 서술은 찾아볼 수 없었다.

> ㉕ **남편의 손님 접대와 경제적 뒷받침:** 남편 사의공은 늘 몸이 여위고 병이 많은 것이 걱정이었으며, 문학과 역사 공부로 즐거움을 삼았고, 집이 본래 청빈한 데다 별도로 살림에 마음을 쓰지도 않았다. 그러나 숙인이 그 때그때 일을 처리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그 곤궁함을 모르게 하였으며, 때때로 손님이 와서 술상을 차리면 반드시 별미를 갖추었다. 사의공의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말했다. "아무개는 가난해도 이런 것이 있으니, 이는 필시 어진 내조자가 있음이야."[79] (韓元震, 「淑人黃氏墓誌銘」, 『南塘集』 2:52)

양반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남편을 섬기고 간병하는 봉양의 성격을 띤 행위 이외에도 여성은 '남편이 어려움을 모르게' 가계 경제를 책임져야 했고 손님 접대를 맡았다. 손님은 남편을 찾아온 것이기에, 남성이 직접 손님 접대를 했지만, 여성은 음식과 술상을 차리는 등의 노동을 했고,[80]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용을 직접 충당했다. 가정 경제를 위해 노동했으며, 남편의 의식주를 돌보고, 남편의 사회생활 관리에 여성이 음식을 대접하는 등의 헌신적 노동을 했다.[81]

> ㉖ **상장례와 제사:** 항상 이렇게 말했다. "제사를 지내면서 공경하지 않으면 신령이 흠향하려 하지 않아 복이 내려지지 않을 것이니 소홀히 할 수

79) '司議公素患淸羸多疾, 又以文史自娛, 家素淸貧而不以爲意, 淑人隨事經理, 使不知其窮匱, 時或迎賓擧觴, 必有異味, 親友皆曰: "某之貧而有是, 是必有賢內助也."' (韓元震, 「淑人黃氏墓誌銘」, 『南塘集』 2:683)

80) 김명자(2020, 176)는 남성이 손님을 접대하고 여성이 음식을 차리는 것을 '부부유별'의 상호 존중으로 해석하면서도, 남성이 중심 역할을 하고 여성이 음식을 장만한 것은 성별 위계가 작동한 것이라고 보았다.

81) 양반 여성이 남편에게 '내조했다', 즉 '안에서 도왔다'는 표현이 사실상 멘토, 지기(知己), 의견 자문, 감성 지지자, 스승, 리더의 역할을 했던 조선시대 양반가 아내의 역할과 부부관계의 실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기숙(2017a)를 참조.

있겠는가?"[82] (李德壽,「贈貞敬夫人洪氏墓誌銘」,『西堂私載』4:150)

상장례와 제사를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장례 준비와 수행, 제사의 사전 준비, 음식 장만(재료 기르기 및 구매, 조리 과정, 저장 등의 가사노동) 등의 제반 업무가 수반되며, 종을 통해 해당 업무의 일부가 대리-수행된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기록에 반드시 정성, 공경, 예 등이 언급됨으로써, 도구적, 기계적 수행이 아니라 영혼의 진정성이 요청되었음이 파악된다. 이를 영혼 노동으로 명명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비용과 노고가 소여되며, 관련 서술에서 공경, 순종, 단정, 엄숙, 성실, 복종 등 정신과 마음, 정서가 외화된 태도 수사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기능적으로 수행되는 노동이 아니라 태도, 품성, 인격성이 요청되었다.

시부모의 상을 당해 장례를 치를 때나 제사를 지낼 때는 정성과 공경의 태도가 요청되었다. 공경하지 않는 제사는 조상이 흠향하지 않고 복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발언은 제사를 준비하는 여성에게 진정성과 공경이 일종의 '태도 윤리'로 요청되었음을 시사한다. 상을 당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여 애도하는 것을 기록해, 상장례와 제사에 참여하는 여성의 진정성이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83]

㉗ **친척 돌봄:** 부사공의 담종이 아주 심해지자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고름을 째낸 다음 빨아내면 좋습니다." 숙인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자녀

82) '常曰: "祭而不敬, 神不顧歆, 而福不降, 其可忽乎?"' (李德壽,「贈貞敬夫人洪氏墓誌銘」,『西堂私載』4:529)

83) 물론 상례와 제사에 요구되는 정성, 공경 등의 진정성이 여성에게만 요청되었던 것은 아니다. 남성도 상장례와 제사에 정성과 공경을 요청받았다.: '병환이 드시면서부터 초상을 치를 때까지, 초상을 치르고도 묻을 때까지, 받들어 모시는 정성이나, 제사를 받드는 절차에서 작은 일까지 분주하지만 했지 예의에 어긋나고 정성이 부족하기만 했습니다(7:132). (自病至殯, 自殯至窆, 擧扶之誠, 侍奠之節, 奔走斗斛, 禮廢靑缺.' (金柱臣,「祭伯母文」,『壽谷集』7:478). 이 같은 사례는 상장례의 정성과 예의가 남녀를 막론하고 '효'를 기반으로 한 자손의 보편적 태도로 강조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대상이 친부모, 친동생 등 절대다수가 혈육이다.

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시어머니 어깨에 큰 종기가 났었는데 네 아버지께서 그 고름 난 곳을 빨아내었더니 열흘쯤 지나서 나았다. 이제 내가 고름을 빨아내야겠다.” 부사공이 그 말을 듣고 엄중히 거절하자 숙인은 시아버지의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서숙부가 고름을 빨아낼 것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서는 자신이 직접 빨아내었고, 밤마다 목욕하고 하늘에 기도를 하였으며, 약을 맛보는 등 여러 절차에 힘과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 달 동안을 하루같이 하였다.[84] (宋煥箕, 「淑人李氏墓誌銘 并序」, 『性潭集』, 5:387)

㉘ **노비 관리:** 비복을 부리시는 데는 먼저 은혜로 하시고 후에야 위엄을 부리셨으며 쌀과 소금이 들고 남에 오직 큰 것만 처리하셨다.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따져서 밝히면 비복의 마음을 잃게 된다. 됫박을 잃는 것은 작지만 사람 마음을 잃는 것은 크니 비록 채찍과 회초리로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집안일을 거느릴 수 있다.”라고 하셨다.[85] (吳瑗, 「四姑淑人墓誌銘」, 『月谷集』, 3:329)

사실상 여성의 노동에 해당하는 친척에 대한 수유 및 육아 노동[86], 간병(㉗), 친인척 돌보기나 이웃에 대한 돌봄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의 진정성을 지시하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었다. 노비를 관리하는 것도 여성의 주요 업무였는데, 여기에는 엄격함, 근엄함, 은혜로움, 인자함 등의 감정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노동의 수고로움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성의 차원에서 담론화하는 관습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㉙ **노동과 과로사:** 누나 혼자 바느질, 옷감 짜기 등을 떠맡아하고 아침저녁으로 쌀을 찧고 물에 불리고 불 때는 일까지 스스로 했다. 매섭게 추운

84) ‘府使公痰腫危劇, 醫云, “破膿後吮之爲良.” 淑人聞之, 泣謂子女曰, “曩我姑氏肩瘡大肆, 汝先親吮其膿處, 經旬得瘳. 今吾當吮之耳.” 府使公聞而拒之嚴, 淑人乘其神氣昏沈時, 瞞告以庶叔將吮而乃自吮之. 每夜沐浴禱天, 嘗藥調節, 竭力盡誠, 數月如一日.’ (宋煥箕, 「淑人李氏墓誌銘 并序」, 『性潭集』, 5:545)

85) ‘馭婢使, 先恩後威, 米塩出入, 惟持大體. 嘗曰: “以察爲明則失婢僕心, 失升合小, 失人心大, 雖箠楚不苛, 而家事以擧.’” (吳瑗, 「四姑淑人墓誌銘」, 『月谷集』, 3:741)

86) 金載瓚의 「淑夫人金氏墓誌銘 并序」(『海石遺稿』, 3:629; 3:826)의 기록을 보면, 형수가 어린 시동생에게 젖을 먹였다.

> 겨울에는 옷에 새 솜을 두지도 못하고 다만 네 벽만이 달랑 있는 얼음장 같은 속에서 지냈다. 이를 본 사람들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누나는 부지런히 일하면서 조금도 게을러지지 않았다. 밤에도 칼과 바늘을 손에 쥐고 등불을 돋우며, 날이 샐 때까지 여러 여자들의 공을 겸하였다. 손등, 손가락이 트고 동상에 걸려 피가 보이는데도 시어머니나 남편을 보고 근심스런 낯빛을 한 적이 없었다. (중략) 수년 후에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누나도 결국 병이 들어 그 이듬해 죽었다.[87] (李忠翊, 「姊氏墓誌銘」, 『椒園遺藁』, 3:551)

문헌을 통해 보면, 결혼한 여성이 빈곤한 가정에서 생계 노동에 종사하고 상장례나 간병에 전념하다가 사망한 사례가 발견된다. 직접 사인으로 기록하지는 않았더라도, 문맥을 통해 보면, 여성이 과도한 노동을 감당하다가 사망에 이른 정황이 발견된다. 이른바 '과로사'에 해당할 정도로 노동 강도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의 사례는 여성의 일상생활 중 노동에 연계된 사항에 대해 형식적 업무 수행 이외에 진정성이라는 태도와 영혼의 문제가 관여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효, 우애, 덕이라는 윤리적 언어이자 인격성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오늘날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의 미소나 친절 등, 일정한 '태도'는 명백한 노동에 속하며, 이것이 자본주의적 배려라는 점에서 일종의 '테러리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88]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행한 결혼생활의 활동 내역은 진정성과 정성을 요청하는 일종의 영혼 노동이었지만, 여성의 인격성과 수양, 태도의 문제로 수렴되어 노고에 대한 인정보다 인격과 윤리 이행의 완성도로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

87) '姊獨爲賃縫紝, 朝夕自舂淅炊爨隆冬衣無新絮. 坐四壁氷凘裏. 觀者爲之體粟. 而姊勤劬不少懈. 夜輒操刀鍼, 灶燈達明, 兼數婦之功. 手指皸瘃見血, 然見尊姑及君子, 未嘗以慼容. (중략) 復數年, 尊夫人棄世, 而姊遂病, 踰年而沒.' (李忠翊, 「姊氏墓誌銘」, 『椒園遺藁』, 3:804)

88) 최효찬 (2016). 장 보드리야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12~14를 참조.

Ⅳ. 양반 여성의 노동에 대한 인정구조 결핍과 어휘적 빈곤과 오류

이 글에서는 18세기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결혼생활을 통해 가정에서 수행한 일의 내역과 범주를 노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여성의 노동이 시부모와 남편 봉양, 간병, 상장례와 제사, 수유와 양육, 길쌈과 음식조리, 농사, 종 관리 등 다양했으며, 이에 대한 인정구조가 주로 효와 윤리, 인격적 차원에서 담론화되었음을 분석했다. 그리고 양반 여성이 수행한 노동 중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종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체-가능했던 것이었으며, 종을 시키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존재했음을 논했다. 방대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의 특성과 세부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자료의 특성으로 인해, 양반가 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정밀한 차이성을 고려하기는 어려웠지만, 당시 양반 여성의 노동이 여공으로 명명되어 일종의 직분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대한 수행을 효와 내조, 부덕으로 명명되는 윤리 규범으로 평가해서, 사실상 여성 노동을 품성/인성으로 전치시키는 언설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노동의 어려움과 고통을 윤리적 언어와 자기 수양, 인격성의 문제로 전치시키는 문화를 파생시켰다는 것 또한 보편적 사안에 속한다. 여성이 효 또는 내조로 수행한 노동의 내역인 봉양, 간병, 상장례, 내조 등에는 진정, 정성, 공경 등 감정 노동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성 노동'이자 '영혼 노동'이 필수적으로 기대되고 요청되었다.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글은 조선시대 양반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강요된 의무와 윤리에 그림자 진 '영혼 노동'의 실상을 재성찰하는 계기를 제안했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이 여성의 생애사를 기록한 문헌에는 사실상 노동으로 점철된 여성의 결혼생활에서 여성이 수행한 노동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서술이 대부분 생략되었다. 이는 관찰자/기록자가 남성인 관계로, 규방과 부엌 등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노동의 현장에 무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성이 여성 노동의 결과에 대한 수혜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담론이나 언설 구조를 형

성하는 과정에 당사자 여성이 사유와 판단, 평가의 주체로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록자-남성은 여성이 수행한 노동의 절차나 과정에 수반되는 질료에 대한 이해, 내용, 방법, 기술 등 학습이나 숙련 과정에 주목하지 않았다. 여공에 대한 남성 기록상의 최대의 찬사는 '배우지 않고도 잘 수행했다'는 표현이다. 해당 업무/노동에 관련된 여성의 학습, 노력, 숙련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여공을 노동이 아닌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공손, 정성, 예의 등 태도가 포함된 인간관계이자 예절이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면, 역으로 바로 그런 이유로 '태도 노동'이자 '영혼 노동'으로 명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조선시대 여성의 결혼생활에 대한 기록은 끊임없이 여성의 정성, 진정성, 공경 등 태도와 품성에 대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 이의현은 여성의 행실을 孝, 友, 莊, 敬, 正, 勤, 儉 등 7가지 개념으로 정리했고,[89] 강재항은 溫慤柔遜, 勤, 整肅, 軌度 등을 언급한 바 있는데,[90] 1,070편의 자료를 통해 추출된 내용 역시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조선시대 여성은 결혼생활을 통해, 진실한 마음(實心), 진실되고 분명함(眞實端的),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경함(赤心誠敬), 엄숙/현명/온화/지혜(肅哲溫惠), 맑고 삼가며 곧고 영민함(淑愼貞敏), 덕의 기운이 아름다움(德氣之美), 정과 사랑이 풍부함(情愛款洽), 권태로워하지 않음(終夕無倦), 공경(虔), 효성과 공경(孝敬), 공경과 삼감(恭謹), 검소(儉素), 어짊(賢), 은혜(恩), 덕(德), 삼감(謹), 겸손하게 삼감(謙愼), 높고 깊은 도량(量宇之崇深), 넓고 방대한 규범(規範之宏博), 진솔함(眞率), 충심(忠), 순종(順)[91], 엄숙하고 순종함(莊順), 정성과 신의(誠信), 정성과 공경(誠敬), 지극한 행실(至行), 반드시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정결하게 함(必誠必潔), 지성으로 돌봄(至誠撫愛), 마음과 뜻을 곡진히 함(曲有情意), 엄격한 자기 규율(斤斤

89) 李宜顯, 「淑人南陽洪氏墓誌銘 并序」, 『陶谷集』 7:255; 7:512)
90) 姜再恒, 「皇考處士府君·皇妣眞城李氏合葬誌」, 『立齋遺稿』 2:233; 2:737
91) 단어의 출처를 일일이 밝히지 않으나, 원문에서 직접 찾은 것이다.

自飭) 등을 실천해야 했음이 확인된다.

양반 여성의 결혼 생활에서 여성을 칭찬하는 단어나 수사는 여성에 대한 인정구조를 형성하는 언설 구조를 반영한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칭찬의 언어는 양반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품성과 태도의 윤리, 진정성과 영혼을 증명해야 하는 내면의 압박을 시사한다. 효, 봉양, 내조, 돌봄을 수행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요청되었기에, 여성의 가정생활은 투명한 무게로 압박하는 노동의 질량을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삶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양반 여성의 인격성을 지시하는 언어나 품성 수사는 사실상 노동의 질과 결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동하는 여성에 대한 인정구조의 부재는 역설적으로 여성 존재와 역할의 핵심을 노동에 두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에,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언설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맥락으로 당대 사회와 이념이 여성의 삶을 끌어당기고 그 역량을 대가 없이 흡수했던 것이다. 노동강도를 인격적 완성도로 환치시키거나 품성으로 수렴할 때, 보상이라는 세속적인 대가와 무관한, 윤리적이고 숭고한 직분으로 간주할 때, 노동의 공유, 협력, 연대,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거나 삭제되고, 오직 개인의 인내, 덕성, 수양의 몫으로 전치하여 담론화되는 경향이 강화된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결혼생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노동에 대한 인정구조의 결핍이나 인격성으로의 전치 형상은 역사화되고 사회적 상상력으로 이어져, 오늘날에도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자(또는 약체)의 역할과 자질, 능력과 역량을 '투명하게' 생성하는 담론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동'이라는 단어는 다른 언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맥락에 따라 변형생성하는 역동적 개념이다.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인정과 평가는 언어문화와 더불어 생성될 때만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다.

【주제어】 여성 노동, 여공, 부덕, 곤정, 양반 여성, 봉양, 품성, 영혼노동, 진정성, 공경

[참고문헌]

강명관 (2018). 조선 초기 자녀안(恣女案)의 적용 사례에 대한 연구: 김정경(金定卿)의 처 왕씨(王氏)의 예.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95~125.
강성숙 (2013). 조선후기(19세기) 일상생활의 장에서 남/녀 젠더 차이의 간극과 교섭: 가장의 역할을 한 여성의 생활사 서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0, 7~42.
강혜선 (2012). 조선후기 사족 여성의 경제활동과 문학적 형상화.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4, 189~219.
김경미 (2012). 조선후기 여성의 노동과 경제생활. 한국여성학, 28-4, 85~117.
김경미 (2016). 여성노동에 대한 유가담론과 그 재생산 방식에 대하여. 여성문학연구, 38, 41~72.
김명자 (2020). 『曆中日記』를 통해 본 18세기 양반가 남성의 가사활동과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95, 165-195.
김서세리아 (2019). 조선 초기 여성 규훈서의 사서오경 (재)인용 양상 연구: 소혜왕후의 [내훈]을 중심으로. 儒學硏究, 49, 1~23.
김서세리아 (2021). 『내훈』과 『열녀전』 인물 인용을 통해 본 소혜왕후의 젠더정치성. 시대와 철학 32-1, 37~61.
김성희, 이기영 (2007). 조선시대 가사노동의 성별분업: 풍속화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2-3, 1~21.
김엘리 (2017). 한산이씨의 『고행록』으로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여성과 역사, 26, 199~222.
박경주 (2012). 규방가사가 지닌 일상성의 양상과 의미 탐구: 여성들의 노동과 놀이에 주목하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151~182.
서원주 (2020). 노동 개념의 무세계성에 대하여: 아렌트의 맑스 비판에 대한 고찰. 시대와철학, 31(2), 35-64.
양수정 (2020). 조선 17세기 수첩(繡帖)의 문예사적 가치. 한국민화, 13, 6~36.
오보라 (2019). 조선 후기 지성사의 관점에서 본 『胎敎新記章句大全』의 의미. 고전과해석, 27, 213~246.
윤분희 (2004). 규훈서 <여범> 연구. 여성문학연구, 11, 319~344.
이순구 (2017). 딸에서 며느리로: 조선 여성의 삶과 결혼. 내일을 여는 역사, 69, 102~115.
이형대 (2007). 규방가사·민요·계몽가사의 모성 표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153~184.
이효재 (1985). 한국 여성 노동사 연구 서설. 여성학논집, 2, 147~167.

장정수 (2017). 규방가사에 나타난 '혼인문제'와 여성의 인식. 어문논집, 80, 5~35.
전지원 (2019). 조선후기 사족 여성과 노동담론 형성 과정: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34~40.
조혜란 (2017). 행장(行狀)에 재현된 조선시대 어머니상. 한국고전연구, 38, 253~284.
최기숙 (2010).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난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현경문-주소저' 부부관련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 301~337.
최기숙 (2014). 18세기 여성의 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빈곤의 감성 통제와 여성의 삶. 여성문학연구, 32, 7~44.
최기숙 (2016). 조선후기 여성의 '문화/문학'적 실천(讀·書·行)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재성찰. 국어국문학, 176, 115~149.
최기숙 (2017a), 숨기는 힘, 숨은 역량: '내조'의 경계 해체와 여성 존경 언어의 회복을 위하여 – 18세기 조선의 '문(文)' 양식에 나타난 여성의 자품(資稟) 수사 재성찰. 민족문화연구, 75, 261~300.
최기숙 (2017b). 여종과 유모: 17~19세기 사대부의 기록으로부터: '일상・노동・관계'와 윤리 재성찰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1, 105~162.
최기숙 (2017c). 조선후기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학적 연구: 17~20세기 초 '여성생활사 자료집'을 통해 본 현황과 추이.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5, 239~301.
최증조, 한복룡 (2018).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妻의 財産상 지위. 法學硏究, 29-3, 177~212.
최효찬 (2016). 장 보드리야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고전번역원(https://www.itkc.or.k)
허원기 (2003).『壺範』에 나타난 여성 독서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231~257.
황수연 외 옮김 (2010).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1~8. 서울: 보고사.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 옮김 (2019),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Illich, I (1982). Shadow Work. 노승영 옮김 (2015), 그림자 노동. 서울: 사월의 책.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여성이 결혼생활을 통해 가정에서 수행한 일의 내역과 범주를 노동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시부모와 남편 봉양, 간병, 상장례와 제사 등, 효와 윤리의 관점에서 담론화되었으나, 사실상 종을 통해 (부분적으로) 대체-가능했던 여성의 '일'을 '노동 없는 노동(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은 일종의 그림자 노동)'으로 간주하고, 해당 내역을 재성찰했다.

이를 통해, 효와 내조, 부덕으로 명명되던 윤리적 규범이나 직분으로 강조된 의무가 사실상 여성 노동을 품성/인성으로 전치시키는 언설 구조를 형성해, 양반 여성에게 정성 · 공경 · 진정을 요청하는 '영혼 노동'을 자연화했고, 여성이 결혼생활에서 수행한 실질적인 노동의 어려움과 고통을 윤리적 언어와 자기 수양, 인격성의 문제로 전치시키는 문화를 파생시켰음을 해명했다.

여성은 가내 노동을 통해 질문 없는 수행, 학습 없는 숙련, 과정 없는 결과라는 3중의 부담을 감당했다. 이는 효 또는 내조의 언어로 포용되었으며, 여기에 수반된 노동에는 감정 노동의 수준을 넘어선 '진정성 노동'이자 '영혼 노동'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양반 여성에게 암묵적으로 요구된 노동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실상을 해명하고, 여훈, 내훈, 규훈서 등이 여성의 활동이나 수행성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태도, 인성으로 흡수하여 명분 있게 정당화하는 논리를 해명했다. 이를 통해 여성 노동의 실상을 재사유하는 인식적 전환의 계기를 제안하고자 했다.

[Abstract]

Women's Skill · Virtue · Household management and Soul Labor: Refletive Resrarch on the Marriage Life and Labor/Field of Yangban Women in Chŏson Era

Choe, Keysook (Yonsei University)

In this article, the details and categories of work performed by yangban women at home through marriage during the Chŏson period were newly 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labor. Through this, a discourse was made in terms of filial piety and ethics, such as nursing mother-in-law and husband, nursing care, honorary service and rituals, but in fact, the 'work' of a woman, which was (partially) replaceable with maids and servants, was not considered labor-free labor (which was regarded as a kind of shadow labor), and the details were re-reflected.

In this way, the ethical norms, which were called filial piety, good wife, and women' virtue, in fact, transformed female labor into character/personality, naturalized 'soul labor' for yangban women, and the practical difficulties that women performed in marriage. It was clarified that it derived a culture that transposed over suffering into problems of ethical language, self-discipline, and personality.

Women had to bear the triple burden of performance without questions; skill without learning, and results without processes through work in the home. This was embraced in the language of filial piety or virtuous wives, and the labor involved was essentially premised on "sincerity labor" and "soul labor" beyond the level of emotional labor.

In this article, we will explain the reality of the 'shadow' draped in labor implicitly imposed on yangban women in the Chŏson era, arguing that it worked as a basis for rational justification. Through this, we tried to suggest an opportunity for a cognitive transformation to rethink the reality of women's labor.

【Keywords】 Woman's labor, Woman's virtue, Woman's rule, female yangban, supporting patents-in-law and husband, personality, soul labor, sincerity, respect

논문투고일: 2021년 11월 1일 / 논문심사일: 2021년 12월 6일 /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3일

【저자연락처】 kschoi@yonsei.ac.kr